



◇부처님 가르침을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스토리 구성, 캐릭터 개발, 보급망 개척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새싹포교 보물창고인데...

# 불교만화 '불모지'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동네 한 귀퉁이 초라한 만화방에서나 접하는 일회성 소일거리가 아니다. 인쇄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만화는 이제 무한한 꿈과 상상의 세계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대중사회의 중요한 예술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90년대 이후 만화는 일반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평론가들도 만화를 본격 대중 문화의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등 만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 만화분야가 정착되고 있고, 영상대중 예술로서의 애니메이션도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만화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각종 만화동아리와 만화 전문 사이트가 다수 등장했다.

수상을 받는 등 미약하나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지난 95년 불교텔레비전에서도 동자승과 스승의 짝맞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선만화'를 제작해 선보였고, 최근 개국한 인터넷불교텔레비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빛대리의 깨달음'이라는 네 컷짜리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만화 손오공〉 등을 그려온 만화가 이정문씨는 "불자와 스님들이 만화라는 매체 자체를 아이들이나 보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교 만화는 항상 외면해 왔다"면서 "또한 그동안 선보인 만화의 대부분이 경전이라는 원전에 충실하다 보니, 내용의 진부함이나 캐릭터상의 문제 등 만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과 진한 감동을 담은 3차원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등장 등으로 일반 만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아직 걸음마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불교 만화의 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뒷짐진 채 훌륭한 문화포교의 매개체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팔만사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전문 스토리작가 양성해야

우선 전문 스토리 작가 양성과 이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대중적인 캐릭터 개발, 만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매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캐릭터를 이용한 포교와 팬시 사업 등 직간접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일회성 오락거리가 아닌 대중의 삶 속에서 만화가 새로운 불교문화의 전달자로, 포교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opia.com)

## 한땀 한땀 누빈 정성

### 김해자 '누비'展

4월12~18일 공평화랑

천 속에 솜을 넣고 땀땀이 바스질 한 누비옷은 천과 솜이 세포처럼 살아 숨쉬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보온효과가 탁월하다. 옛날 승복이나 병사들의 방한복은 모두 손누비옷으로 만들었으나 재봉틀이 나오면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씨(49, 경남 창원군 영산면 동리)가 4월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공평화랑 2층에서 손누비의 대중화를 위한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5명의 제자들과 지난 3년간 공방에서 만든 손누비옷 100여점과 쪽, 홍화 등의 천연재료로 염색한 홍색 흑색 황색 청색 백색의 오방색 천 1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아가옷 승복 개량한복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판매까지 할 예정. 전시 기간중 누비옷 제작시연과 공개강좌도 실시된다. 강좌의 주제는 '전통누비의 가치와 계승(13일)' '문화 속의 복식과 민족성(17일)' 등. 15세부터 누비옷을 만들기 시작한 김씨는 한 스님으로부터 3년간 전통누비옷 제작기법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96년 무형문화재 누비장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누비옷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꿈이라는 김씨는 앞으로 대구 말라노 프로젝트와 연계해 누비옷의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씨는 "누비바느질은 똑같은 작업의 끝없는 반복이므로 고도의 인내와 정신집중을 요구해 '이뤄고' 화두를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0559)521-2631 이은호 기자



◇누비장 김해자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손누비옷 100여점과 천연염료로 염색한 오방색천 100여점을 선보인다.



◇연극 '탈속'은 무봉스님의 수행과 환속, 방황, 신문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 존재의 본질 무엇인가

### 불교연극 '탈속'

인천연극제 무대에 29일~4월23일

깨달음의 경지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인간적 번민과 그 해결과정을 그린 불교연극 '탈속'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항아리' (대표 장정희)가 준비중인 연극 '탈속'은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열리는 '2000년 인천 연극제'에서 선을 보인다.

작가 김영무씨의 희곡을 이재상씨가 연출하는 이 연극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의 근원에 탐착하는 무봉스님과 평범하지 않은 스님의 뒤를 쫓는 종교기자 한부장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무봉스님의 수행과 환속, 방황, 다시 산문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동 출제거리인데, 그 전개 과정이 잔잔한 수목화처럼 펼쳐진다.

연출을 맡은 이재상씨는 "자극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연극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스님의 환속과 깨달음이라는 주제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등장 인물들의 내면과 심리상태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표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 연극은 삶의 본질, 깨달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방황과 고민을 무봉스님과 한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극단 항아리는 지난해 방송 촬영중 얻은 질병으로 별세한 불자탈렌트 고김성환씨가 오랫동안 이끌어 온 인천지역의 극단으로, 김씨의 뒤를 이어 아내 장정희씨가 대표를 맡아 이번 인천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이번 연극에는 인천 구인사 능화스님이 불교관련 의례를 고증하는 등 고문을 맡기도 했다. (032)862-9683. 이은자 기자

4월12~16일 진주 경남도문화예술관

5월5~14일 지리산 지통사

## 비구 노사나 산중전

지리산 자락의 토굴에 기거하면서 그림을 수행의 방편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내고 있는 상묵스님이 전시회를 연다.

4월 12일~16일까지 진주시 경남도문화예술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비구 노사나 산중전'이 바로 그것.

군더더기 없는 선과 절제된 색채, 그리고 자연의 이법에 따른 듯한 부드러운 선들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부처,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소품에서부터 대작에 이르는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 가운데는 섬진강의 모래와 조약돌, 유화를 적절히 조화시킨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엄마와 들녘에서 돌아오는 소녀'에서는 동심과 불심의 상반 관계를 포착하고 있으며, '선다(禪茶)'에서는 수행자들의 세계를 표출한다.

진주 전시에 이어 스님은 또 5월 5일~14일에는 지리산 지통사에서 '산중전'을 열 예정인데, 이 전시에서는 800호 짜리 대작을 감상할 수 있다.(0591)759-0501

### 광주 비엔날레 29일 개막

제3회 광주 비엔날레가 29일 개막된다. '인(人·man)+간(間·spac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성'을 화두로 서구 중심의 비엔날레와의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45개국 25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6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등 중의공원 전역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특히 서울 가나아트,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해 기획전도 펼친다. 또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비엔날레의 주제 '인+간'이 새겨진 버선, 가방, 각종 문구류 등 2백여 가지 상품도 선보인다.

## 일타콘스님의 유고법문집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일타콘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콘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콘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오 계 이야기

일타콘스님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받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갖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양보살계 1-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지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범공양론 신국판 / 값 5,000원
- 김로법론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콘스님의 열반...  
콘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인력수심시오, 영인해택을 드립니다.

☉ 동선요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